



2026 VISION

흔한 구역, 함께 키우는 아이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전도서 4장 9절]



가정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충일교회 가정사역부

말씀

여러분은 혹시 “나는 별로 잘하는 것도 없고, 특별하지도 않아”라고 느껴본 적이 있나요? 시험 성적, 운동 실력, 친구 관계 속에서 비교하다 보면 자신이 작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저 친구처럼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놀라운 사실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크고 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는 거예요.

기드온은 300명을 이끌고 미디안의 큰 군대를 상대해야 했습니다. 숫자로 보면 상대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칼과 창 대신 나팔과 횃불, 그리고 향아리를 들게 하셨습니다. 한밤중에 향아리를 깨뜨리고, 횃불을 들고, 나팔을 불며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여!”라고 외쳤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미디안 군대가 스스로 혼란에 빠져 서로를 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승리는 이스라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방법을 사용하셨을까요? 이 전쟁이 사람의 실력이나 숫자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어요. 청소년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적이 부족해 보이고, 환경이 불리해 보여도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해서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순종할 때 사용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붙잡아야 할까요? “나는 작다”는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은 크시다”는 믿음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기도, 작은 결단, 작은 순종을 통해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까요?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으로, 비교가 아니라 순종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충일교회 가정사역부

예 배 순 서

사 도 신 경 다 같 이

찬 송 나로부터 시작되리 다 같 이

말 씬 봉 독 사사기 7:19~25절 다 같 이

설 교 작은 순종이 큰 승리가 된다 설 교 자

말 씬 나 눔 다 같 이

합 심 기 도 다 같 이

축 복 기 도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가 부모에게

주 기 도 문 다 같 이

★ 찬송과 공동 기도문과 말씀 나눔은 뒷면을 참조해 주세요

★ 합심기도는 가족원들의 기도제목으로 같이 기도해 주세요.

찬 양



▶ 찬양 동영상 바로가기

공동기도문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작고 부족한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기드온과 300명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신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믿게 하시고,
작은 순종을 실천하게 해 주세요. 두려움 대신 믿음을 선택하게 하시고,
매일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나눔

1. 하나님께서 기드온과 300명을 통해 어떻게 승리를 이루셨나요?
2. 내가 작게 느껴질 때, 오늘 말씀을 어떻게 내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